

##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September 30, 2020

### In this Issue

**I. Law & Regulation**

**II. Articles**

**III. FAQ**

**IV. News**

**V. Events**

### Key Contacts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전문조직은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금융안정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9.3, 금융위원회)

### 1. 금융안정지원단 설치

- 금융위원회는 2020년 9월 4일(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및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금융안정지원단을 설치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4 월부터 긴급대응반 제도를 활용하여 비상금융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음
  - 비상금융지원반은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기업안정화를 위한 40 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등 코로나 19 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음
-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금융과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임

- 이에 대응하여 금융위원회는 비상금융지원반을 금융안정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민생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2. 금융안정지원단의 구성 및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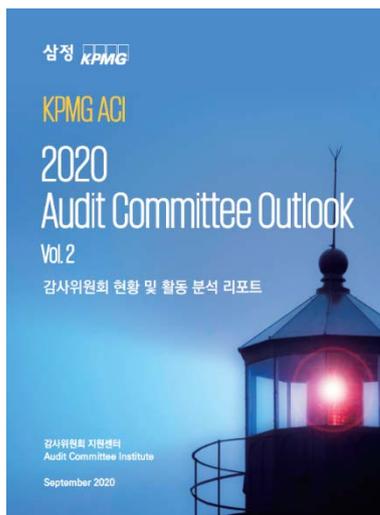
- 금융안정지원단은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되며 정책총괄과, 금융지원과 등 총 12명의 조직으로 구성됨
- 금융안정지원단은 175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등 비상금융조치에 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음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하여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별 집행상황과 수정·보완사항을 점검하며,
  -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장 우수사례들은 공유해 나가겠음
  -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 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이 밖에도, 금융안정지원단은 경제·금융상황 변동에 대비한 금융정책 수립, 금융시장 위험요인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 금융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등 코로나 19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음

[Back to top](#)

##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 「2020 Audit Committee Outlook」



-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감사위원회 관련 최신 현황을 추가하여 「KPMG ACI 2020 Audit Committee Outlook」을 출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제도 변화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 재직기간 감소, 여성 감사위원 증가 전망
  - 감사위원회의 회의활동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증가
  - 회계·재무 전문가는 감사위원 중 3분의 1 상회
  - 2018 년 12 월 31 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이래,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증가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 상장 법인들이 2020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설계: '핵심통제' 위주로 통제활동 설계 문서화, '보완통제' 활동을 고려한 업무분장 설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평가: 설계 평가 및 추적조사의 효율적 운영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벤치마킹 전략을 활용한 '자동통제' 운영 평가, '공통통제'를 통한 IT 일반통제 운영평가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Back to top](#)

##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경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0.7.3)

#### Q

-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독립적 평가 시 독자적으로 검토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여 추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내부감사부서 인원을 활용하였을 경우,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내부감사부서 인원의 업무분장을 달리하거나 프로세스를 서로 달리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A

- 외부감사법 제 8 조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경영진이 운영실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가 작성한 평가 계획과, 수행한 절차 및 결과 등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였다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조직(본 예시에서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책임자의 임면권, 성과평가 권한 등 마련
  - 내부감사부서 내에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 마련

#### 관련 근거

- 외부감사법 제 8 조
-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60

[Back to top](#)

##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 국내 동향

- **삼정 KPMG, “기업 내부회계관리조직 늘고 있어” [서울경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조사대상 206개사 중 174개사로 전년대비 25%p 증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조직을 보유한 174개사 중 60%에 해당하는 10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만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
-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하는 기업 2%에 불과 [파이낸셜뉴스]**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 2조 이상 기업 123개사 가운데 단 3곳(2%)만이 내부감사부서에서 이를 담당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미국에선 주요 기업의 절반(46%)가량이 내부감사부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업무에 관여
-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 사례 34건 추가 공개 [뉴시스]**
  - 외부감사인인 회사의 내부통제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막기 위한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해야 함

- 거래소, 말 많던 내부회계제 교육 '100→200명' 증원 [프레스나인]
  - 거래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지난 6월과 7월 온라인 100명 정원으로 실시하였으나, 10월에 열리는 3차 교육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계획

## 해외 동향

- 2020 trends in SOX compliance [HELPNETSECURITY]
  - 미국 기업 내부통제 담당자들은 SOX 준수 관련 효율성 제고와 사이버 보안 및 IT 통제를 중시
  - COVID-19으로 인해, 위험 관리를 위한 기존의 기술과 프로세스를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 향상
- Completing your SOX compliance in a COVID-19 environment [Accounting today]
  - 1분기 재무실적에 근거해 2020년 말 실적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중요성을 조정해야 함
  - 중간평가에 앞서 가급적 많은 통제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Back to top](#)

##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 삼정 KPMG 제8회 AAP(Advanced Auditor Program)\_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안

※ COVID-19로 인해 본 세미나는 Webinar(웹세미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일 시: 2020년 11월 12일(목) 14:00~16:20
-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Rose room (5층)
- 참가신청: 아직 참가신청이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 프로그램:

Time	Agenda	Speaker
14:00~14:05 (5분)	<b>Opening Remarks: 김교태 CEO(삼정 KPMG)</b>	
14:05~14:45 (40분)	<b>Session 1.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b>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역할과 의미 - 내부회계관리제도 단계 별 감사위원회의 감독 방향 - 최근 감독당국 동향 및 시사점	
14:45~15:25 (40분)	<b>Session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1 : 설계 및 운영 관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 계획</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조직, R&amp;R 및 보고체계 (감사위원회 감독 지원조직 포함)</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환경 (규정, 성과평가체계, 내부 신고제도 등) 체크포인트</li> <li>- 영역 별(전사수준, 프로세스 수준, IT인프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체크포인트</li> </ul>
15:25~15:35 (10분)	<b>Break Time</b>
15:35~16:15 (40분)	<b>Session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2</b> <b>: 평가 및 보고 관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평가, 설계평가, 운영평가 단계 별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li> <li>- 회사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li> <li>-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결론 도출</li> </ul>
16:15~16:20 (5분)	<b>Closing Remarks: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삼정 KPMG)</b>

[Back to top](#)

##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김유경 전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Leader



**한상현 전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Leader

- 위승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신장훈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 변영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조원덕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허세봉 부대표: 품질관리 담당
- 염승훈 부대표: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 최재범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권영민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한상일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 황재남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b>임근구 전무</b>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b>강정구 전무</b>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b>박성배 전무</b>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b>한상현 전무</b>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b>이종우 전무</b>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b>이주한 전무</b>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b>정 현 상무</b>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b>박상욱 상무</b>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b>이성노 상무</b>	금융 산업 부문 담당
<b>조정래 상무</b>	금융 산업 부문 담당
<b>신광근 상무</b>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b>전현호 상무</b>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b>지동현 상무</b>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b>황구철 상무</b>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b>심정훈 상무</b>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b>윤주현 상무</b>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b>박상욱 상무</b>	금융 산업 부문 담당
<b>김연정 상무</b>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b>정양기 상무</b>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Privacy](#) | [Legal](#)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